# 농촌 조손가정의 노동부담 실태 분석

이 성 주(대구대학교 석사) · 조 희 금(대구대학교 교수) · 채 정 숙(대구대학교 교수)

농촌 노인의 경우 도시 노인과는 다르게 정년의 개념이 없어 고령까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즉 농촌의 노인부부 또는 독신 노인가구의 노인들은 수입노동인 농사뿐만 아니라 생활유지를 위한 가사노동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이렇듯 노동 부담을 가지고 있는 농촌 노인들 가운데 조손가정의 조부모는 손자녀 양육까지 더해져 노동의 부담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 조손가정의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지는 노동부담의 실태는 어떠한지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경남 합천 지역을 중심으로 만 12세 초등학교 이하의 손자녀 양육을 일차적으로 담당하는 조부모 13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2007년 10월~11월 초에 실시되었으며, 심층면접을 통한 사례조사로 이루어졌고 개인 면접 후 이를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농촌의 조손가정 조부모를 대상으로 이들의 노동 부담 실태를 심층 면접하여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농촌 조손가정에서 느끼는 노동부담은 크게 수입노동인 농업노동, 가사노동, 손자녀 돌보기 부담의 세 가지로 나타났다. 먼저, 농촌 조손가정의 조부모는 손자녀 양육을 하면서 농업노동에 더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들의 생계를 잇기 위한 수단으로 농업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조부모는 손자녀로 인해 농사일의 방해를 받았다. 일을 하다가도 손자녀가 보육시설 및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면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또 손자녀 양육 전에는 부부가 함께 했던 농사도 조모는 손자녀 양육을 위해 전적으로 농사일에 참여할 수 없는 등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농촌 조손가정의 조부모는 가사노동의 부담을 더 크게 가졌다. 손자녀 양육으로 인해 식사 준비 및 세탁, 청소 등과 같은 기본적인 가사노동량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를 도와줄 가족원이 부족하여 더욱 힘들어 하였다. 손자녀 원가족과는 접촉이 자주 이루어지지 않았고, 손자녀의 경우 어린 나이로 도움을 주기 어려웠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전부터 조모가 가사일을 맡아왔기 때문에 조모가 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고 도움을 주지 않았다. 셋째, 조부모는 손자녀를 돌보는 것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조부모는 손자녀의 세수 및 목욕 등과 같은 위생관리와 등하원 및 등하교 준비, 손자녀의 편식과 같은 일상생활에 힘들어 하였다. 손자녀 돌보기는 손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조부모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학동기의 손자녀 양육보다 미취학아동기 손자녀 양육에 더욱 많은 부담을 느꼈다.

본 연구결과, 농촌 조손가정의 조부모는 손자녀 양육으로 인해 농업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가사노동과 손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노동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농촌 조손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농가도우미의 지원이 필요하고 농업노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양육도우미 등과 같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이런 지원이 이루어지면 조부모는 손자녀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사노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사도우미 및 반찬 배달 서비스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밖에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나 사회적 · 정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